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4.11.(월) 10:30, 차덕철 대변인 직무대리(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주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내일 4월 12일 오후 3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인도주의 청년활동가와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2030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일정만 공개합니다.

그 외에는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모두에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2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니다. 북한이 조선혁명박물관에 김정은 위원장 업적관을 조성하고, 당·국가수반 추대 10년 행사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영도자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북한은 오늘 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당·국가 최고 수위 추대 1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4월 10일인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중앙보고대회는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등 당·정·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선혁명박물관 김정은 위원장 사료관 개관, 경축 우표 발행, 시·도·군 보고대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 동향도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지도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에 북한의 주요한 정치 행사 일정들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남북통신선 상황은 어떤지요? 해금강호텔 해체 관련 우리 측 요청에 대한 북측 회신이 있었는지요? 무응답이 이어질 경우 추가 요청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남북은 지난해 10월 남북통신선을 복원한 이후에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통신연락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는 통화를

정상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도 업무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금강호텔 상황과 관련해서는 4월 초 우리 측 입장을 북측에 구두로 전달한 이후 정부는 북한의 반응과 동향을 계속 주시·확인해 오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조치들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특정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해금강호텔 해체에 대해 우리 측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협의에 호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고요.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